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

윤 이 현 유 민 희 류 재 희 박 선 응*

고려대학교

최근 국내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알아본 연구는 극히 드물다. 본 연구는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한국인의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를 알아보고, 각각이 개방성 및 가치개방성과 가지는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56명의 참여자들은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 척도에 응답하고, 성격 5요인 중 개방성 항목에 응답하였다. 그 후,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상관없이 참여자들은 레즈비언보다 게이에 대해서 더 높은 외현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게이에 대한 암묵적 편견 역시 레즈비언에 대한 암묵적 편견보다 높았다. 게이에 대한 암묵적 편견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반면, 레즈비언에 대한 암묵적 편견은 남성 참여자가 여성 참여자보다 더 높았으며 여성 참여자는 레즈비언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방성은 외현적 편견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지만, 가치개방성은 외현적 및 암묵적 편견 모두와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를 모두 측정해 동성애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가치개방성과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가 긴밀하게 관련됨을 확인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동성애, 편견, 외현적 태도, 암묵적 태도, 개방성

† 교신저자 : 박선응,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 02-3290-2868, E-mail : sunwpark@korea.ac.kr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정부는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화하였다. 이는 1960년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자에 대한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이후 동성애자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계는 지난 수십 년간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연구해왔으며 최근 Westgate, Riskind과 Nosek(2015)은 2006년에서 2013년 사이 미국인들의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편견이 26% 감소하고, 암묵적 편견 역시 13.4% 감소하였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에서는 1990년대 동성애자 인권 모임,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가 결성된 이후 동성애자에 대한 문제가 서서히 이슈화되기 시작하였다(정재진, 전영평, 2006). 한국의 성소수자 수는 10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추정되는데(강병철, 2011), 이들은 사회제도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으며 여러 정신건강의 위협 요소들에 노출되어있다. 부부로서의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없음은 물론, 취업에서도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으며 남자 동성애자의 경우 군 생활 시 많은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류성진, 2013). 또한,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보다 우울증 및 자살 사고 등의 정신질환 유병율이 높고(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2002)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감은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킨다. 자신을 숨기고 사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커밍아웃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커밍아웃은 오히려 이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강병철, 2011).

앞서 언급한 국내의 연구들은 동성애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제도적 차별과 정신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사회적 편견을 지목하고 있으나(강병철, 2011; 김수경, 2015; 류성진, 2013;

신승배, 2013;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4; 정재진, 전영평, 2006) 실증적으로 한국인들이 동성애자에 대해 가지는 편견을 알아본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의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편견과 암묵적 편견 정도를 확인하고, 각각이 참여자의 성별과 대상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조절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적 성격으로서의 개방성 및 가치개방성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관련이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태도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는 Herek(1988)의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 Towards Lesbians and Gay Men)이다. 이 척도는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문항이 각각 10개씩 포함되어 있어,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Phillips, Ingram, Smith와 Mindes(2003)는 같은 동성애자이라고 할지라도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태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집단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여 연구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각 집단에 대한 태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게이와 레즈비언을 구분하여 편견을 측정한 많은 연구들에서 이성애자들의 게이에 대한 외현적 편견이 레즈비언에 대한 편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erek, 1994; Herek, 2000; Hinrichs & Rosenberg, 2002).¹⁾

1) Steffens(2005)는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Herek(1988)이 개발한 문항들이 서로 다른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실제로 레즈비언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는 대신

동성애자의 성별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서도 외현적 편견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112개의 연구를 대상으로 동성애자들, 동성애자들의 행동, 동성애자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외현적 태도를 분석한 한 메타분석에 따르면(Kite & Whitley, 1996), 비록 동성애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성차가 없었지만, 동성애자들과 동성애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메타분석 이후에 출판된 연구의 경우, 이러한 성차가 발견된 연구도 있고(Hinrichs & Rosenberg, 2002; Lazarević, Orlić, & Knežević, 2015; Steffens, 2005) 유의미한 성차가 없었던 연구도 있었다(Breen & Karpinski, 2013; Lemm, 2006).

한편, 동성애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알아본 국내 연구에 따르면 참여자 성별에 관계없이 레즈비언보다 게이에 대한 외현적 편견이 더 높았으며, 남성 이성애자들이 여성 이성애자들보다 동성애자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서영석, 이정립, 차주환, 2006).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이영선, 권보민, 이동훈, 2012). 편견 대상과 참여자의 성별 간 상호작용을 알아본 국내 연구는 서영석 등(2006)의 연구가 유일했으나 이 연구에서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게이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과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여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를 묻은 결과, 레즈비언에 대한 편견이 더 높게 나오기도 하였다(Steffens, 2005, Study 3).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성애자에 대한 암묵적 태도

사회적 소수집단이나 외집단 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은 많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측정된 외현적 태도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기반한 응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Von Hippel, Sekaquaptewa, & Vargas, 1997). 다시 말해, 동성애자들에 대해 편견을 갖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을 인식하여 참여자들이 그들에 대한 솔직한 태도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보다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즉 암묵적 태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Greenwald, McGhee와 Schwartz(1998)가 고안한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인데, 이 방식은 자기보고식 설문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을 조작하기가 더 어렵고(Steffens, 2004), 타인종이나 외집단에 대한 반응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자기보고 설문보다 예측타당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Greenwald, Poehlman, Uhlmann, & Banaji, 2009). 또,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가 서로 다른 행동을 예측한다는 점(Fazio, Jackson, Dunton, & Williams, 1995; Neumann, Hulslenbeck, & Seibt, 2004) 역시 두 가지 태도를 구분하여 측정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태도는 동성애자와 관련된 제도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예측하지만, 암묵적 태도는 동성애자를 봤을 때의 표정이나 의도치 않은 말실수 등을 예측할 가능성이 있다.

동성애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을 다룬 연구들은 외현적 편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성

이성애자들의 암묵적 태도가 여성 이성애자들에 비해 더 부정적임을 확인하였다(Anselmi, Voci, Vianello, & Robusto, 2015; Dasgupta & Rivera, 2006; Steffens, 2005). 하지만, 암묵적 편견에 있어 유의미한 성차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 역시 존재하여(Banse, Seise, & Zerbes, 2001; Breen & Karpinski, 2013; Dasgupta & Rivera, 2006; Steffens & Buchner, 2003) 동성애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은 남성이 높거나 성차가 없다고 잠정적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게이와 레즈비언 각각에 대한 암묵적 태도의 성차를 살펴본 Steffens(2005)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 이성애자의 게이에 대한 편견은 여성 이성애자의 레즈비언에 대한 편견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Breen과 Karpinski(2013)에 따르면 남성 이성애자는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편견에 차이가 없었던 반면, 여성 이성애자는 레즈비언보다 게이에 대한 편견이 높았다. 흥미롭게도, 두 연구 모두에서 여성 이성애자는 레즈비언에 대해 암묵적 편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성애자들에 대한 암묵적 편견을 다룬 국내 논문은 저자들이 아는 한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²⁾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사이의 관련성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해 측정된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연합 검사를 통해 측정된 암묵적 태도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확인했던 메타분

석 결과(Hofmann, Gawronski, Gschwendner, Le, & Schmitt, 2005), 둘 사이에는 크지는 않지만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평균적인 효과 크기 = .24).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역시 대체로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대상과 참여자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게이에 대한 태도만을 측정했던 Lemm(2006)의 경우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를 모두 측정한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레즈비언에 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남성들의 게이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Steffens, 2005). Lazarević 등(2015)의 연구에서 두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여성들에게서는 나타났으나 남성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Anselmi 등(2015)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전통적인 이중 범주 방식이 아닌 단일 범주 방식으로 암묵적 연합 검사를 시행하였던 Breen과 Karpinski(2013)의 연구에서는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개방성과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성별 외에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조절하는 개인차 변인으로 성격 5요인 중의 하나인 개방성(Openness)이 많이 연구되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 즉 새로운 경험이나 사고에 대해 열려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도 열려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Cullen, Wright와 Alessandri(2002)가 외향성,

2) 2014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동성애 수용성 측정을 위한 내외현적 척도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기는 하였으나, 본 저자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연구에 대한 논문은 출판되지 않았다.

신경증, 개방성 등의 성격 변인이 자기보고된 동성애자에 대한 공포와 관련되는지 확인한 결과, 개방성은 자기보고된 동성애에 대한 공포와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Barron, Struckman-Johnson, Quevillon과 Banka(2008)는 게이에 대한 외현적 편견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이 개방성임을 확인하며 개방성이 타인의 성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김용희와 반건호(2005)가 수행했던 국내 연구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공포와 개방성은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암묵적 편견을 모두 측정한 Bergh, Akrami와 Ekehammar(2012)는 개방성이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편견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지만 암묵적 편견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Smith(2012) 또한 개방성이 게이에 대한 암묵적 편견과 관련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은 개방성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Costa와 McCrae(1992)에 의하면, 개방성은 6개의 하위 요인, 즉 상상(fantasy), 심미(aesthetics), 감정(feelings), 행동(actions), 사고(ideas), 가치(values)에 대한 개방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가치개방성은 개인의 성향, 흥미, 욕구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신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좌-우익적 정치 신념(left/right ideology)과 개방성의 관련을 살펴본 Van Hiel, Kossowska와 Mervielde(2000)는 좌익적 신념(left-wing ideology)이 가치개방성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반면, 다른 개방성 하위 항목들과는 상관이 약함을 밝혀 가치개방성이 다른 개방성 항목들과 구분되는 심리적 구성개념임을 확인하였다.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는 기존

의 성 관념과 불일치하는 타인에 대한 태도이므로 개방성 중에서도 다른 관점을 수용하는 태도, 기존의 사회적 관습에 물음을 던지는 태도를 반영하는 가치개방성과 관련을 가질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과 그 하위 요인 중 가치개방성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연구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편견을 탐색하고, 개방성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태도와 성격 5요인 중 개방성을 측정하는 설문에 응답하였고, 동성애자에 대한 암묵적 연합 검사를 수행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동성애자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측정할 국내 최초의 연구이기 때문에 특정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기보다는 분석 가능한 모든 사항을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 Phillips 등(2003)의 제안에 따라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를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였지만, 두 집단을 합쳐 동성애자 전반에 대한 태도 역시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방 법

연구참여자 및 절차

학내 포털 공고를 보고 지원한 62명의 대학생(남자: 32명, 평균 나이: 22.76세)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은 실험이 시작되

기 전 실험 전반에 대해 안내 받고 참여 동의서에 서명 후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와 성격의 5요인 중 개방성에 관한 문항에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하여 답변하였다. 설문이 끝난 후 동성애자들에 대한 암묵적 연합검사를 수행하고 인구학적 정보들에 답변하였다. 62명 중 동성애자라고 밝힌 4명, 과제를 잘못 이해한 1명, 무작위 응답으로 인하여 암묵적 연합검사 점수를 산출할 수 없는 1명이 제외되어 56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외현적 태도

동성애자들에 대한 외현적 태도는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 Towards Lesbians and Gay Men; Herek, 1988)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문항 각 10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제시된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5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점: 매우 동의한다)로 평정하였다. 예시문항으로는 “레즈비언은 우리 사회에 잘 맞지 않는다”와 “남성의 동성애는 단지 다른 생활 방식이므로 비난 받아서는 안 된다”(역채점 문항) 등을 들 수 있다. 해당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게이 혹은 레즈비언에 대한 편견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한국어 번역 및 타당화에 대한 논문이 부재하여 연구자가 직접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석사과정 연구자가 번역 후 미국에서 박사를 받고 교수생활을 했던 다른 연구자가 검토하였고, 의논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인 상의를 거쳤다. 이후 독립된 집단($N = 45$)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문항, 게이 문항, 레즈비언 문항에 대해 각각 .95, .93, .89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설문 문항 중 이상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문항은 없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합치도는 전체 문항, 게이 문항, 레즈비언 문항에 대해 각각 .94, .92, .87로 Herek(1988)이 보고하였던 수치와 비슷하였다.

개방성

개방성은 성격의 5요인 중 하나로 6개의 하위 요소(상상, 심미, 감정, 행동, 사고, 가치)로 구성되어 있다(Costa & McCrae, 1992).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번역된 개정판 성격 검사지(NEO-PI-R: 이승은, 1993; 이인혜, 1997) 중 개방성을 측정하는 48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하위 요소를 측정하는 문항은 8개씩 제시되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서 제시하는 일상의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를 5점 척도(1점: 아주 조금, 5점: 아주 많이)로 평정하였다. 분석에는 개방성 전체 문항($\alpha = .89$)과 하위 요소 중 가치개방성($\alpha = .66$)을 사용하였다.

암묵적 연합검사에 사용된 자극

본 실험에서 사용한 40장의 사진 자극을 선정하기 위해 별도의 평정집단($N = 27$)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평정자들은 80장의 사진을 보고 5가지 항목(사진에 담긴 성적 요소, 사진이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정도, 사진의 정서가, 사진 속 인물들의 매력도, 사진 속 인물이 커플로 지각되는 정도)에 대해 평정하였다.

먼저 각 대상(이성애자 커플, 게이 커플, 레즈비언 커플) 내에서 성적인 요소, 흥분 유발

정도가 높은 자극은 성적 맥락이 있는 자극으로, 두 항목에서 점수가 낮은 자극은 성적 맥락이 없는 자극으로 구분하였다. 성적 맥락이 있는 자극의 경우 연인 사이의 신체적 접촉을 나타내는 사진이었고, 성적 맥락이 없는 사진은 단순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사진으로 나란히 서있거나, 어깨동무를 한 사진 등이었다. 사진 속 인물들이 커플로 지각되는 정도가 높은 사진을 선택하였고, 정서가와 매력도는 각 대상 간에 최대한 유사하도록 선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절반의 피험자에게 성적 맥락이 있는 이성애자 커플의 사진 10장, 성적 맥락이 있는 게이 커플과 레즈비언 커플의 사진 각각 5장을 제시하고, 또 다른 절반의 피험자들에게는 성적 맥락이 없는 이성애자 커플의 사진 10장, 성적 맥락이 없는 게이 커플과 레즈비언 커플의 사진 각각 5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통계분석 결과 성적 맥락에 따른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암묵적 편견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이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암묵적 태도

동성애자들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암묵적 연합검사를 사용하였다. 암묵적 연합검사는 총 7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그림 1 참조), 참여자들은 화면 중앙에 제시되는 사진이나 단어를 해당 범주(좋음/나쁨, 동성애자/이성애자)로 분류해야 한다. 자극물로는 20개의 단어(긍정/부정 각 10개)와 커플 사진 20장을 사용하였다. 즉, 동성 커플 사진 10장(게이 커플 5장, 레즈비언 커플 5장), 이성 커플 사진 10장을 사용하였다.

7개의 블록은 5개의 연습 블록(블록 1, 2, 3, 5, 6)과 2개의 실전 블록(블록 4, 7)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1. 암묵적 연합 검사 블록 1~블록 7의 예시

어졌다. 블록 1에서 피험자들은 두 개의 자판을 사용하여 제시되는 20장의 사진(게이 커플 5장, 레즈비언 커플 5장, 이성 커플 10장)을 ‘이성애자’ 혹은 ‘동성애자’ 범주로 분류하는 것을 연습했다. 각 자극은 2번 반복하여 제시되어 총 40회 시행하였다. 블록 2에서는 블록 1과 동일한 두 개의 자판을 사용하여 제시되는 20개의 단어를 ‘좋음’ 혹은 ‘나쁨’ 범주로 분류하는 것을 연습했다. 각 자극은 2번 반복하여 제시되어 역시 총 40회 시행하였다. 블록 3에서는 20장의 사진, 20개의 단어를 ‘이성애자’ 혹은 ‘동성애자’, ‘좋음’ 혹은 ‘나쁨’ 범주로 분류했다. 절반의 피험자들은 ‘이성애자’와 ‘좋음’, ‘동성애자’와 ‘나쁨’을 각각 동일한 자판

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받았고, 나머지 절반의 피험자들은 '이성애자'와 '나쁨', '동성애자'와 '좋음'을 각각 동일한 자판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받았다. 블록 4에서는 블록 3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자극들이 2번 반복해서 제시되어 총 80시행을 진행하였다. 블록 5에서는 블록 1에서 제시된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범주가 반대에 위치하였고, 피험자들은 새로운 범주의 위치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했다. 블록 6에서는 블록 3과 반대되는 조합의 사진과 형용사들을 동일한 자판으로 분류하도록 지시 받았다. 즉, 블록 3에서 '이성애자'와 '좋음', '동성애자'와 '나쁨'을 각각 동일한 자판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받은 피험자들은 블록 6에서는 '이성애자'와 '나쁨', '동성애자'와 '좋음'을 각각 동일한 자판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받았고, 블록 3에서 '이성애자'와 '나쁨', '동성애자'와 '좋음'을 각각 동일한 자판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받은 피험자들은 블록 6에서는 '이성애자'와 '좋음', '동성애자'와 '나쁨'을 각각 동일한 자판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받았다. 블록 7에서는 블록 6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자극들이 2번 반복 제시되어 총 80시행을 진행하였다. 한 블록 내의 자극들은 무선화된 순서로 제시되었다.

동성애자, 게이, 레즈비언에 대한 암묵적 태도 점수 산출

두 가지 종류의 범주가 함께 제시되었던 블록인 블록 3, 4, 6, 7의 응답 속도들을 활용해 Greenwald, Nosek과 Banaji(2003)가 제안한 알고리즘에 따라 개별 피험자들의 암묵적 태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응답 속도가 10000ms보다 느리거나 300ms보다 빠른 시행들을 제거

하였으며 틀리게 응답한 시행들의 응답 속도는 자극이 제시된 후 피험자들이 맞게 재응답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대체하였다. '동성애자'-'좋음'과 '이성애자'-'나쁨'이 동일한 자판으로 할당되었던 블록(블록 3 혹은 블록 6)의 평균 응답 속도에서 '이성애자'-'좋음'과 '동성애자'-'나쁨'이 동일한 자판으로 할당되었던 블록(블록 6 혹은 블록 3)의 평균 응답 속도를 뺀 값을 두 블록의 응답 속도의 합동 표준 편차(pooled standard deviation)로 나누어 효과 크기를 획득하였다. 동일한 방식으로 블록 4 혹은 블록 7과 블록 7 혹은 블록 4의 응답 속도들을 활용해 효과 크기를 획득하였다. 최종적으로, 두 개의 효과 크기를 평균 내어 개인의 암묵적 태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효과 크기가 클수록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높고 동성애자보다 이성애자를 선호하는 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게이와 레즈비언 각각에 대한 암묵적 편견 점수의 산출은 각각 레즈비언 커플 사진이 제시된 시행들을 제외하거나 게이 커플 사진이 제시된 시행들을 제외한 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점수의 높고 낮음의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논리는 존재하지 않으나 IAT 연구자들은 0.15를 "약간의 편견", 0.35를 "중간 정도의 편견", 0.64를 "강한 편견"의 기준으로 삼아왔다(Blanton, Jaccard, & Burrows, 2015).

결 과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1에 제시되었듯, 전체

표 1.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1.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편견	-							
2. 게이에 대한 외현적 편견	.97***	-						
3. 레즈비언에 대한 외현적 편견	.95***	.85***	-					
4. 동성애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	.37**	.40**	.30*	-				
5. 게이에 대한 암묵적 편견	.39**	.37**	.38**	.66***	-			
6. 레즈비언에 대한 암묵적 편견	.27*	.28*	.23	.74***	.37**	-		
7. 개방성	-.43***	-.45***	-.38**	-.16	-.15	-.22	-	
8. 가치개방성	-.57***	-.51***	-.58***	-.28*	-.32*	-.33*	.46***	-
평균	2.00	2.21	1.79	0.24	0.36	0.20	3.47	3.80
표준편차	0.71	0.84	0.65	0.33	0.52	0.58	0.40	0.48
최대값	4.55	4.70	4.40	1.12	1.51	1.87	4.63	4.75
최소값	1.00	1.00	1.00	-0.50	-0.93	-1.02	2.60	1.75

* $p < .05$. ** $p < .01$. *** $p < .001$ ($53 \leq N \leq 56$)

적으로 외현적 편견이 높은 사람은 암묵적 편견 역시 높게 나타났다. 게이에 대한 외현적 편견은 게이($r = .37$), 레즈비언($r = .28$)에 대한 암묵적 편견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레즈비언에 대한 외현적 편견 역시 게이($r = .38$)와 레즈비언($r = .23$)에 대한 암묵적 편견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개방성의 경우 전체 문항의 점수와 하위 요소인 가치개방성 점수가 다른 상관 패턴을 보였다. 개방성 전체 점수는 외현적 편견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암묵적 편견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개방성과 외현적 편견 사이의 상관은 유의하였으나, 암묵적 편견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던 이전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Bergh et al., 2012). 하지만, 가치개방성은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편견 모두와 유의한 부적 상관

을 보였다. 이 결과는 개방성의 하위 요소 중 가치에 대한 개방성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부적적으로 예측하는 중요 변인임을 보여준다.

참여자 성별과 편견 대상에 따른 외현적 태도

외현적 편견이 참여자의 성별(남, 여)과 편견 대상(게이, 레즈비언)에 따라 차이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혼합 변량분석(mixed ANOVA)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편견 대상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지만, $F(1, 53) = 48.37$, $p < .001$, $\eta_p^2 = .48$, 편견 대상과 참여자 성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F(1, 53) = 2.77$, ns . 즉, 남성과 여성 참여자 모두 레즈비언($M = 1.79$)보다 게이($M = 2.21$)에 대해 더 높은 외현적 편견을 보였다(표 1).

참여자 성별과 편견 대상에 따른 암묵적 태도

외현적 편견과 마찬가지로 참여자의 성별과 편견 대상에 따른 암묵적 편견 차이가 유의한 지 검증하기 위해 혼합 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편견 대상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54) = 4.93, p = .03, \eta_p^2 = .08$. 즉, 참여자들은 레즈비언($M = 0.20$)보다 게이($M = 0.36$)에 대해 더 높은 암묵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표 1). 하지만, 이 주효과는 편견 대상과 참여자 성별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제한되었다, $F(1, 54) = 7.62, p = .008, \eta_p^2 = .12$. 이 상호작용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효과를 검증하였다(그림 2, 표 2). 우선 대상에 대한 입장에서 분석하면, 게이에 대한 암묵적 편견은 참여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t(54) = -0.72, ns$. 하지만, 레즈비언에 대한 암묵적 편견의 경우 참가자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54) = 2.20, p = .03$. 다음으로, 참여자의 성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남성 참여자들의 경우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암묵적 편견에 차이가 없었다, $t(29) = -0.37, ns$. 반면, 여성 참여자들

표 2.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의 성차

편견 대상	참여자 성별	
	남성 평균 (표준편차)	여성 평균 (표준편차)
외현적 태도		
게이	2.23 (0.68)	2.18 (1.00)
레즈비언	1.71 (0.48)	1.87 (0.80)
암묵적 태도		
게이	0.31 (0.52)	0.41 (0.53)
레즈비언	0.35 (0.58)	0.02 (0.55)

의 경우, 게이에 비해 레즈비언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낮았다, $t(25) = 3.79, p = .001$. 추가적으로, 남성 및 여성 참여자의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각각 0과 유의미하게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4번의 일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오직 레즈비언에 대한 여성 참여자들의 암묵적 편견만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t(25) = 0.20, ns$. 이는 여성 참여자들은 레즈비언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없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 (Breen & Karpinski, 2013; Steffens,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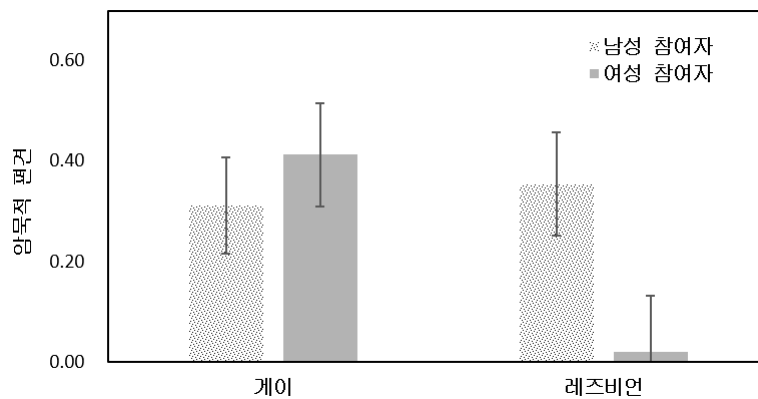


그림 2. 참여자 성별과 편견 대상에 따른 암묵적 편견

가치개방성과 참여자 성별에 따른 태도

앞서 언급했듯, 가치개방성은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 모두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상관관계가 참여자 성별에 의하여 조절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태도 측정치에 대하여 참여자 성별과 가치개방성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남성은 +1, 여성은 -1로 코딩하고, 가치개방성은 평균중심화하였으며, 두 변수를 곱함으로써 상호작용항을 만들었다.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를 준거변인으로 삼아 4번의 독립된 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게이에 대한 암묵적 태도에서만 나타났다, $b = 0.41$, $SE = 0.15$, $t = 2.81$, $p = .007$.

이 상호작용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성 참여자들의 경우 가치개방성과 게이에 대한 암묵적 편견 사이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b = 0.20$, $SE = 0.24$, $t = 0.85$, *ns*. 하지만,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 가치개방성과 게이에 대한 암묵적 편견 사이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존재하였다, $b = -0.61$, $SE = 0.17$, $t = -3.70$, $p = .001$. 이러한 결과는 남성 및 여성 참여자들 모두 전반적으로 게이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높지만, 가치개방성이 높은 여성일수록 게이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상대적으로 낮아짐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인들의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를 탐색하고, 동성애자의

성별, 참여자의 성별, 가치개방성이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외현적 편견의 경우, 남성 참여자들과 여성 참여자들 모두 레즈비언보다 게이에 대해 더 높은 편견을 보였는데,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암묵적 편견 역시 외현적 편견과 마찬가지로 레즈비언보다 게이에 대한 편견이 높았다. 하지만, 이 차이는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게이에 대한 암묵적 편견에 대해서는 성별의 차이가 없었으나 레즈비언에 대해서는 남성 참여자들의 편견이 여성 참여자들에 비해 더 높았으며 여성 참여자들은 레즈비언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없었다. 또한, 남성 참여자들은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다르지 않았던 반면, 여성 참여자들은 레즈비언보다 게이에 대해 더 높은 편견을 보였다. 게이에 대한 외현적 편견과 암묵적 편견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레즈비언에 대한 외현적 편견과 암묵적 편견은 정적 상관의 방향성만 보였을 뿐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개방성은 외현적 편견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암묵적 편견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가치개방성은 외현적 편견 및 암묵적 편견과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가치개방성과 참여자 성별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게이에 대한 암묵적 태도에서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 참여자의 경우 가치개방성이 높을수록 게이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낮았으나 남성 참여자의 가치개방성은 게이에 대한 암묵적 편견과 관련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편견은 5점 척도에 평균 2점으로 10년 전 진행된 서영석 등(2006)의 연구에서의 외현적 편견보

다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최근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캐나다(Hoffarth & Hodson, 2014)와 미국(Ratcliff, Miller, & Krolkowski, 2012)에서 진행된 연구보다는 편견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암묵적 편견의 경우, Blanton 등(2015)이 언급한 기준에 의하면, 게이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편견이, 레즈비언에 대해서는 약간의 편견이 존재하였다. 최근 미국에서 단일 범주 IAT를 사용해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연구는 미국인들이 게이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레즈비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Breen & Karpinski, 2013). 이러한 결과는 그간 동성애자 인권에 대해 많은 진보를 이뤄온 서구인들에 비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는 사회 분위기와 제도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인들의 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 Kite와 Whitley(1996)의 메타 분석에서는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태도에 차이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연구의 경우에는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차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Breen & Karpinski, 2013; Lemm, 2006). 미국에서 동성애자 사이의 결혼이 합법화되는 등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의식에 의해 통제 가능한 외현적 태도에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다. 실제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외현적 태도가 변화하여 왔는지는 시교차적 메타분석(cross-temporal meta-analysis; 이선경, 팔로마 베

나비데스, 허용희, 박선웅, 2014)를 통해 추후 별도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게이에 대한 외현적 태도가 레즈비언에 비해 더 부정적이라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서영석 등, 2006; Hinrichs & Rosenberg, 2002; Kite, 1984; Kite & Whitley, 1996; Lazarević et al., 2015; Steffens, 2005). 이러한 결과는 동성애자를 떠올릴 때 레즈비언보다는 게이를 먼저 떠올려 동성애자에 대한 경계심을 게이를 위주로 형성해왔기 때문일 수 있다. Herek(1988)은 레즈비언보다 게이가 대중들에게 더 많이 노출되어 이성애자들의 게이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공고히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대중을 대상으로 커밍아웃을 하고, 처음 동성 결혼식을 올려 대중의 주목을 받은 동성애자 커플 모두 남성 동성애자들이었다(류성진, 2013). 또한, 동성애자 중 남성 동성애자에게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으로 그들이 동성애적 성행위로 인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는 인식이 있으며(김은경, 권정혜, 2004; 신승배, 2013; 윤가현, 1995) 이 때문에 본 연구 참여자들이 게이에 대해 특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

한편, 암묵적 편견의 경우 외현적 편견과 동일하게 게이에 대한 편견이 레즈비언에 대한 편견보다 높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신경학적 수준에서 사람들이 이성애자 사진에 비해 게이 사진에 대해서 두드러진 초기 주의 반응을 보이거나 레즈비언 사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음을 밝힌 최근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Dickter, Forestell, & Mulder, 2015). 주목할 만한 것은 본 연구에서 편견 대상과 참여자 성별 사이에 상호작용이 유의미했다는

것이다. 즉, 게이에 대한 암묵적 태도에서는 성차가 없었으나 레즈비언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존재하였다. 추가 분석 결과, 이러한 차이는 여성 참여자들은 레즈비언에 대한 편견이 없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여성 이성애자들의 경우 레즈비언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이 없었던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Breen & Karpinski, 2013; Steffens, 2005).

종합해 보면, 남성 참여자들의 경우 외현적으로는 게이보다 레즈비언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나 암묵적 수준에서는 레즈비언을 게이와 비슷한 정도로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 외현적 수준에서와 마찬가지로 암묵적 수준에서도 게이에 비해 레즈비언에 대해 더 수용적이었으며, 나아가 암묵적 수준에서는 편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남성끼리의 신체 접촉과는 달리 여성끼리의 신체 접촉은 제재를 받지 않으며(장휘숙, 1995) 일상적인 일로 취급된다. 이성애자 여성들은 동성 친구와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레즈비언 커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신체 접촉을 비슷하게 하며 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이성애자들이 레즈비언을 볼 때 생소하게 느끼지 않아 자동적인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을 수 있다. 향후 이 주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자, 게이, 레즈비언에 대한 외현적 태도가 각각 해당하는 암묵적 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레즈비언에 대한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의 관련은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둘 사이의 상관계수가 .23으로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룬 메타분석(Hofmann et al., 2005)에서 보인 평균적인 효과크기($r = .24$)와 거의 유사해 그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 연구들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외현적 태도의 상관유무가 비일관적인 반면(Anderson & Koc, 2015; Breen & Karpinski, 2013; Gabriel, Banse, & Hug, 2007; Lemm, 2006) 본 연구에서는 거의 모든 항목들에 대해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Nosek (2005)에 의하면,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인 목적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을 왜곡하고자 하는 자기제시동기가 강할수록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간의 상관이 약해진다. 서구 사회의 경우 동성애자 인권 문제가 보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다. 그러한 사회적 합의를 의식해 동성애자에 대한 자동적인 부정적 반응을 보고하려 하지 않아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간 괴리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자기제시동기가 비교적 낮아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간 상관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가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를 국내에서 비교한 첫 시도인 만큼 향후 이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개방성의 하위 항목 중 가치개방성을 분리하여 분석했던 본 연구의 시도는 큰 의미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방성이 외현적 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갖지만, 암묵적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Bergh 등(2012)의 연구결과를 재현함과 동시에, 개방성의 하위 항목 중 가치개방성은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 모두와 부

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치개방성이 동성애자에 대한 무의식적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지속적인 동기나 목표가 있을 경우 암묵적 태도는 외현적 태도에 의해서 영향 받을 수 있다 (Devine, Plant, Amodio, Harmon-Jones, & Vance, 2002; Logan, 1988; Moskowitz, Gollwitzer, Wasel, & Schaal, 1999). 가치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동성애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지속적인 동기와 목표를 가져 무의식적으로도 동성애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자리 잡았을 수 있다.

한편, 가치개방성과 게이에 대한 암묵적 편견의 관련은 성별에 의해 조절되었다. 즉,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 가치개방성이 높을수록 게이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낮았던 반면, 남성 참여자들의 경우 가치개방성이 높다고 해서 게이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낮지 않았다. 이는 여성의 경우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가 성 역할, 가족, 종교에 대한 신념 등 개인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동기로부터 형성되는 반면, 남성의 경우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가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에게 승인을 받고자 하는 동기로부터 형성된다는 이전 연구의 논의들(서영석 등, 2006; Herek, 1988)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여성 참여자의 경우 개인적 가치가 게이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형성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한 반면, 남성 참여자의 경우 개인적 가치보다 사회적 요인이 더 큰 역할을 했을 수 있다. Herek(1986)은 많은 남성들이 남자는 강인해야 하고, 친밀한 행동을 피해야 한다는 '남성성'의 이데올로기를 청소년기부터 구축한다고 보고 하였고, Cullen 등(2002)은 이러한 남성성을 위

반한다고 여겨지는 게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또래 집단의 지지를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게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또래로부터 무시당할 것을 걱정해 남성들은 암묵적 수준에서 게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해왔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동성애자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여 한국인들의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보다 입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외현적 편견과 암묵적 편견은 서로 관련되나 구분되는 태도이며 (Nosek, 2005) 각각이 예측하는 행동이 다른 경우가 있어(Asendorpf, Banse, & Mücke, 2002; Fazio, et al., 1995; Neumann et al., 2004) 두 가지 수준의 편견을 모두 측정하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의 이해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방성 중 가치개방성은 동성애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혀 개방성이 동성애자의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화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암묵적 연합 검사의 동성애자 커플 자극으로 백인 동성애자 커플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저자들이 서양 동성애자의 사진을 사용한 이유는 우리나라 동성애자의 사진을 인터넷 상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회가 서양 국가들에 비해 동성애자에 대해서 수용적이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향후 한국인 사진을 이용하여 암묵적 태도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총 분석에 포함된 참여자 수는 56명으로 다른 동성애에 대한 외현적, 암묵적 태도를 측정된 연구들(Banse et al.,

2001; Dasgupta & Rivera, 2008; Inbar, Pizarro, Knobe, & Bloom, 2009; Lazarević et al., 2015; Lemm, 2006)에 비해 다소 적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참여자수를 대상으로 암묵적 연합 검사를 실시한 연구 역시 다수 존재하여(Dasgupta & Rivera, 2006; Gabriel et al., 2007; Inbar, Pizarro, & Bloom, 2011; Steffens, 2005)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의심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은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게이와 레즈비언 사진들이 혼합되어 있는 암묵적 연합 검사를 진행한 후 레즈비언 자극과 게이 자극이 나왔던 시행들을 제외하여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암묵적 편견 점수를 각각 산출하였다. 이는 게이에 대한 검사와 레즈비언에 대한 검사를 따로 시행하여 각각의 점수를 산출하는 것에 비해 암묵적 편견의 타당도를 약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상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해서 독립적인 암묵적 연합 검사를 시행하여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가 기존 사회 관습에 비추어 새로운 성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므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대학생을 참여자로 삼은 본 연구는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고, 향후 연구들은 참여자들의 연령을 다양하게 하여 본 연구 결과가 전체 한국인에게 일반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단 연구를 통해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사회적 변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성애자와 얼마나 가까이 앉는지 혹은 동성애자에 대해 얼마나 차별적 언행을 하는지 등 일상적인 행동을 측정하거나 차별금지법, 동성혼 인정 등 동성애자와 관련된 법과 제도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어봄으로써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연구 또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병철 (2011). 사회적 낙인 인식이 성소수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2(2), 381-417.
- 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2002). 남성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 비교. *신경정신의학*, 41(5), 167-189.
- 김수경 (2015).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두 가지 시선.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13-214.
- 김용희, 반건호 (2005). 한국판 동성애 공포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327-336.
- 김은경, 권정혜 (2004).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가 남성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969-981.
- 류성진 (2013). 동성애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결정과 시사점. *공법학 연구*, 14(4), 87-114.
- 서영석, 이정림, 차주환 (2006). 성역할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혐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

- 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77-199.
- 신승배 (2013). 한국 동성애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33(1), 380-415.
- 윤가현 (1995). 동성애에 대한 편견. 서울: 지성과 패기, 26, 112-116.
- 이선경, 팔로마 베나비데스, 허용희, 박선웅 (2014).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증가: 시교차적 메타분석(1999-2014).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3), 609-625.
- 이승은 (1993). NEO-PI-R 성격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예비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선, 권보민, 이동훈 (2012). 청소년의 동성애 경험, 성의식, 동성애 혐오, 우울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19(1), 129-147.
- 이인혜 (1997). NEO-PI-R의 타당성 연구. *성격 및 개인차연구*, 6, 57-70.
-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4). 한국 성소수자 건강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36, 43-76.
- 정재진, 전영평 (2006). 동성애 소수자의 차별 저항과 정책변동. *한국행정연구*, 15(4), 207-240.
- 장휘숙 (1995). 한국대학생의 성에 대한 가치관 연구. *전환기에 선 한국인의 가치관 소화*, 155-213.
- Anderson, J., & Koc, Y. (2015). Exploring patterns of explicit and implicit anti-gay attitudes in Muslims and Atheis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5(6), 687-701.
- Anselmi, P., Voci, A., Vianello, M., & Robusto, E. (2015). Implicit and explicit sexual attitudes across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Journal of Bisexuality*, 15(1), 40-56.
- Asendorpf, J. B., Banse, R., & Mücke, D. (2002). Double dissociation between implicit and explicit personality self-concept: The case of shy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380-393.
- Banase, R., Seise, J., & Zerbes, N. (2001). Implicit attitudes towards homosexuality: Reliability, validity, and controllability of the IAT. *Zeitschrift für Experimentelle Psychologie*, 48, 145-160.
- Barron, J., Struckman-Johnson, C., Quevillon, R., & Banka, S. (2008). Heterosexual men's attitudes toward gay men: A hierarchical model including masculinity, openness, and theoretical explanation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9(3), 154-166.
- Bergh, R., Akrami, N., & Ekehammar, B. (2012). The Personality Underpinnings of Explicit and Implicit Generalized Prejudic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3(5), 614-621.
- Blanton, H., Jaccard, J., & Burrows, C. N. (2015). Implications of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D-Transformation for Psychological Assessment. *Assessment*, 22(4), 429-440.
- Breen, A. B., & Karpinski, A. (2013).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s toward gay males and lesbians among heterosexual males and femal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3, 351-374.
- Costa, P. T., & McCrae, R. R. (1992). *NEO PI-R, professional manual: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 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NEO-FFI)*. Odessa,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Cullen, J. M., Wright, L. W., & Alessandri, M.

- (2002). The personality variable openness to experience as it relates to homophobia. *Journal of Homosexuality, 42*, 119-134.
- Dasgupta, N., & Rivera, L. M. (2006). From automatic antigay prejudice to behavior: The moderating role of conscious beliefs about gender and behavioral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268-280.
- Dasgupta, N., & Rivera, L. M. (2008). When social context matters: The influence of long-term contact and short-term exposure to admired outgroup members on implicit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s. *Social Cognition, 26*, 112-123.
- Devine, P. G., Plant, E. A., Amodio, D. M., Harmon-Jones, E., & Vance, S. L. (2002). The regulation of explicit and implicit race bias: The role of motivations to respond without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835-848.
- Dickter, C. L., Forestell, C. A., & Mulder, B. E. (2015). Neural attention and evaluative responses to gay and lesbian couples. *Social Neuroscience, 10*(3), 308-319.
- Fazio, R. H., Jackson, J. R., Dunton, B. C., & Williams, C. J. (1995). Variability in automatic activation as an unobtrusive measure of racial attitudes: A bona fide pipelin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013-1027.
- Gabriel, U., Banse, R., & Hug, F. (2007). Predicting private and public helping behaviour by implicit attitudes and the motivation to control prejudiced reac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6*, 365-382.
- Greene, B., & Herek, G. M. (Eds.). (1994). *Lesbian and gay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Vol. 1.). Sage Publications.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1480.
- Greenwald, A. G.,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197-216.
- Greenwald, A. G., Poehlman, T. A., Uhlmann, E. L., & Banaji, M. R. (2009).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II. Meta-analysis of predictive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17-41.
- Herek, G. M. (1986). On heterosexual masculinity: Some psychical consequences of the social construction of gender and sexuali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s, 29*, 563-577.
- Herek, G. M. (1988).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Correlates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Sex Research, 25*, 451-477.
- Herek, G. M. (1994). Assessing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A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with the ATLG Scale.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lesbian and gay issues, 1*, 206-228.
- Herek, G. M. (2000). Sexual prejudice and gender: Do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differ? *Journal of Social Issues, 56*, 251-266.

- Hinrichs, D. W., & Rosenberg, P. J. (2002). Attitudes toward gay, lesbian, and bisexual persons among heterosexual liberal arts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omosexuality, 43*, 61-84.
- Hoffarth, M. R., & Hodson, G. (2014). Is subjective ambivalence toward gays a modern form of bia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9*, 75-80.
- Hofmann, W., Gawronski, B., Gschwendner, T., Le, H., & Schmitt, M. (2005). A meta-analy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and explicit self-report meas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1369-1385.
- Inbar, Y., Pizarro, D. A., Knobe, J., & Bloom, P. (2009). Disgust sensitivity predicts intuitive disapproval of gays. *Emotion, 9*, 435-439.
- Inbar, Y., Pizarro, D. A., & Bloom, P. (2011). Disgusting smells cause decreased liking of gay men. *Emotion, 12*, 23-27.
- Kite, M. E. (1984). Sex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Homosexuality, 10*, 68-81.
- Kite, M. E., & Whitley, B. E. (1996). Sex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homosexual persons, behaviors, and civil rights: A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336-353.
- Lazarević, L. B., Orlić, A., & Knežević, G. (2015). Prospects of implicit measures in assessment of defensive function of explicit homophobia in heterosexuals, *Psihologija, 48*(1), 79-95.
- Lemm, K. M. (2006). Positive associations among interpersonal contact, motivation, and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s toward gay men. *Journal of Homosexuality, 51*, 79-99.
- Logan G. D. (1988). Toward an instance theory of automatization. *Psychological Review, 95*(4), 492-527.
- Moskowitz G. B., Gollwitzer P. M., Wasel W., & Schaal B. (1999). Preconscious control of stereotype activation through chronic egalitarian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1), 167-184.
- Neumann, R., Hülsenbeck, K., & Seibt, B. (2004).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AIDS and avoidance behavior: Automatic and reflective bases of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 543-550.
- Nosek, B. A. (2005).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mplicit and explicit eval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4*, 565-584.
- Phillips, J. C., Ingram, K. M., Smith, N. G., & Mindes, E. J. (2003). Methodological and review of lesbian bisexual-related articles in counseling journals: 1990-1999.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1*(1), 25-62.
- Ratcliff, J. J., Miller, A. K., & Krolkowski, A. M. (2012). Why pride displays elicit support from majority group members: The mediational role of perceived deservingnes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4*(4), 462-475.
- Smith, A. R. (2012). *The effects of pathogen and moral disgust on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s regarding male homosexuality*. University of Miami, 2012.335.
- Steffens, M. C., & Buchner, A. (2003). Implicit Association Test: Separating transsituationally

- stable and variable components of attitudes toward gay men. *Experimental Psychology*, 50, 33-48.
- Steffens, M. C. (2004). Is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mmune to Faking? *Experimental Psychology*, 51, 165-179.
- Steffens, M. C. (2005).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Journal of Homosexuality*, 49, 39-65.
- Van Hiel, A., Kossowska, M., & Mervielde, I.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openness to experience and political ideolo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 741-751.
- Von Hippel, W., Sekaquaptewa, D., & Vargas, P. (1997). The linguistic intergroup bias as an implicit indicator of prejud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5), 490-509.
- Westgate, E. C., Riskind, R. G., & Nosek, B. A. (2015). Implicit preferences for straight people over lesbian women and gay men weakened from 2006 to 2013. *Collabra*, 1(1), 1-10.
- 논문 투고일 : 2016. 04. 30
1 차 심사일 : 2016. 05. 06
게재 확정일 : 2016. 06. 25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Lee Hyun Yoon

Min Hee Yoo

Jae Hee Ryu

Sun W. Park

Korea University

Despite recent social movements to protect homosexuals' rights in Korea, psychological research investigating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has been largely ignored. The present study examined Koreans'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and how openness is related to them. College students ($N = 56$) responded to questionnaires assessing explicit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and openness, one of the five factors of personality. They then took an Implicit Association Test designed to assess implicit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We found that participants in general had more negative explicit attitudes toward gay men than lesbians. Implicit prejudice against gay men was also higher than lesbians. There was no participant sex difference in implicit attitudes toward gay men. However, male participants had more negative implicit attitudes toward lesbians than female participants did; in fact, females' implicit attitudes toward lesbians were not biased. While openness was negatively related only to explicit prejudice, values, one of the facets of openness, was negatively related to both explicit and implicit prejudice. This was the first study in Korea that investigated both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s toward gay men and lesbians.

Key words : homosexuality, prejudice, explicit attitude, implicit attitude, openness